

# 多國籍企業의 開發途上國에 미치는 經濟的 影響

宋鍾來\*

## 1. 序 言

多國籍企業은 私企業의 한 特殊型態로서 國際經濟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經濟活動의 規模와 影響力은 慢慢 擴大되어가고 있다. 例를 들어 韓國에 進出하고 있는 Gulf Oil의 1967年 賣上高는 同年 韓國의 國民總生產에 해당하고, General Motors의 賣上高는 韓國의 國民總生產의 5倍에 達하고 있는가 하면(表-1 參照) 심지어는 多國籍企業들의 國際資本市場에서의 資本移轉은 國際通貨體制의 不安을 야기시키고 있다. 多國籍企業은 여러 經濟問題와 접촉되거나 小論에서는 그 中에서 海外直接投資<sup>1)</sup>와, 特有한 企業戰略을 中心으로 한 多國籍企業의 經濟活動이 開發途上國의 重要한 政策目標가 되고 있는 經濟成長, 履庸擴大, 國際收支改善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sup>2)</sup> 理論과 現實을 검토하겠다. 우선 多國籍企業의 活動狀況을 分析하고 다음으로는 이 活動의 政策目標에 어떤 方向으로 어느程度 影響을 미치는지 검토하겠다.

表-1

經濟活動規模의 比較  
—重要開發途上國對多國籍企業—

單位 : 10億 美弗

開發途上國	1967年 國民總生產	1967年 賣上高	多國籍企業
印 度	37.2	20.0	General Motors
부 라 질	23.2	13.3	Standard Oil (N.J.)
西 班 牙	22.9	10.5	Ford
멕 시 코	21.8	8.4	Royal Dutch/Shell
아 르 제 텐	13.0	7.7	General Electric
파 키 스 탄	12.0	6.2	Chrysler
터 키	9.8	5.8	Mobil Oil
인 도 베 시 아	8.8	5.5	Unilever
필 립 핀	8.0	5.3	IBM
벤 에 수 엘 라	7.1	5.1	Texaco
이 란	6.4	4.2	Gulf Oil
희 랑	5.7	3.1	Du Pont
콜 름 비 엔	5.1	3.0	BP

\* 西獨 Tübingen大學·經濟學博士

1) 여기서 直接投資라 함은 經營參加를 目的으로 하는 既存或은 新設外國企業의 株式或은 持分의 取得, 長期的貸付, 支店設置를 말함. 따라서 經營參加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株式取得, 貸付 등은 直接投資에 屬하지 않는다.

2) 勿論 物價, 資源分配, 所得分配等等의 經濟變數에도 影響을 미친다.

開發途上國	1967年國民總生產	1967年賣上高	多國籍企業
亞 蘭 韓	4.8	2.9	Westing House
泰	4.3	2.8	ITT
韓	4.2	2.7	ICT
波 罗 訂	4.1	2.6	Goodyear
波 爾 訂	3.9	2.5	Union Carbide
波 爾 訂	3.1	2.5	International Harvester
自 由 中 國	3.0	2.4	Procter/Gamble
波 爾 訂	2.9	2.4	Philips
波 爾 訂	2.4	2.3	Volkswagen W.

a) 日本多國籍企業은 不包含

資料 :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1969, Vol. II, International Tables, UN, New York 1970, pp. 3 ; The Fortune Directory, The 200 largest Industrials Outside the U.S in: Fortune, Vol. 78, No. 4. Chicago 1968, pp. 130, The Fortune Directory of the 500 largest U.S. Industrial Corporation, in: Fortune, Vol. 77, No. 7. Chicago 1968, pp. 186

## 2. 多國籍企業의 定義

多國籍企業의 概念은 問題의 觀點, 取扱範圍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定義될 수 있으나<sup>3)</sup> 여기에서는 여러나라에서 販賣網과 生產據點으로서의 子會社를 設立하여 廣範한 海外經濟活動을 하되, 母子會社를 總合한 平均利潤을 極大化하려는 企業集團을 말한다. 이 概念의 中추적 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 即 (1) 海外活動範圍가 넓다는 것, (2) 이와 關聯되어 個個 子會社의 利潤을 極大化시키는것보다 企業集團全體의 平均利潤을 極大化시키는 戰略을 必要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活動範圍과 戰略의 必要性이 크지 않는 中小企業은 이 概念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참고삼아 經濟學에서 본 多國籍企業과 直接投資의 關係에 對해서 若干의 說明을 加하고자 한다. 多國籍企業과 直接投資를 같은問題로 取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sup>4)</sup> 小論에서 는 달리보고있다. 直接投資는 經濟理論에서는 原來 國際資本移動論으로 取扱되어 왔다. 그러나 直接投資의 原因과 經濟的 效果는 直接投資의 主體인 企業의 目標와 行動樣式 如何에 따라서도 많이 相異해지기 때문에 이 理論만으로는 充分히 說明될 수 없다. 따라서 企業의 目標와 行動樣式을 分析하면서 直接投資의 特殊한 主體인 多國籍企業과 결부되는 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問題를 파악하려는것을 小論에서는 經濟學의 多國籍企業論이라고 하고 싶다. 經營學에서 取扱하는 多國籍企業의 觀點은 다르다<sup>5)</sup>.

## 3. 海外進出의 動機와 行動樣式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를 通한 海外進出의 가장 重要한 動機는 世界各國의 貿易製限政策

3) 重要専門家들에 依한 多國籍企業의 概念規定을 綜合的으로 記述한 文獻 : United N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World Development, New York 1973, p. 118 ; Department of Industry, Trade and Commerce, Notes on some Definition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Ottawa 1971

4) 例를 들어 小宮隆大郎 澄田/小宮/渡邊編, 多國籍企業의 實態, 東京 1973, pp. 168—170 參照

5) Bryson, G.D., Profits from Abroad-A Reveille for American Business, 1964 ; Fayerwe Ather, J.,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A Conceptual Framework, New York 1969 ; Behrman, J.N., Some Patterns in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hapel Hill 1969.

과 격심한 競爭으로 因하여 상실될 可能성이 있는 海外市場을 確保하고, 더 나아가서 國內市場의 포화상태로 因해 鈍化된 企業成長을 극복하기 위해 海外에 新規市場을 개척하려는 데 있다. 國내에 不足한 資源을 確保한다든가 높은 國내賃金水準과 勞動力不足을 극복하려는 것도 海外進出의 動機가 되고 있다<sup>6)</sup>.

이러한 平均利潤 極大化의 目標와 海外進出動機를 배경으로 多國籍企業들은 다음과 같은 經營政策을 시도한다<sup>7)</sup>.

- 一 海外直接投資를 通하여 子會社나 合資會社의 經營에 實質的影響을 미치려고 한다.
- 一 母會社의 中央集權의支配下에 各國에 分散되있는 母子會社들은 한 企業集團으로서 統一된 行動을 한다.
- 一 子會社나 合資會社를 通해서 現地에서 直接生產活動을 하되 製造業의 成長產業이나 資源採取產業에 進出한다.
- 一 子會社를 現地國民經濟의 한 有機的 構成單位로 發展시켜 現地經濟發展과 融合시키는것 보다는 所屬企業集團의 한 構成單位로 集團內에서 企業間의 分業을 助長하려고 한다.
- 一 이 分業過程에서 생기는 母子會社間이나 子會社間에 生產品의 交流時에는 移轉價格의 調整으로 子會社의 收益을 人爲의으로 調整하여 租稅, 賃金上昇을 회피하고 子會社의 收益을 암암리에 送金한다.
- 一 技術開發研究는 母會社에서 集中的으로 한다.
- 一 母會社는 子會社間의 競爭을 防止하기 위해서 子會社들의 製品輸出을 量的으로 地域으로 制限한다.
- 一 現地에서 新商品을 生產하는 경우에는 獨占價格政策을 한다.
- 一 租稅負擔이 적은나라에<sup>8)</sup> 金融子會社를 設立하여 이 會社로 子會社의 收益을 集中 送金한다.

#### 4. 直接投資의 現況

이렇게 多國籍企業은 海外에 投資하여 特有한 經營政策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어느 程度로 投資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多國籍企業이 直接投資를 統計的으로 正確히 파악하는데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있다. 多國籍企業의 統計的 概念을 어떻게 規定하느냐 하는 것도 問題지만 주어진 統計的 概念에 해당하는 統計를 수집하는 것도 問題이다. 그러나 歐美各國統計에 依하면 對外直接投資가 大部分은 大企業에 依해서 行하여지고 이 大企業들은一般的으로 上記와 같은 經營政策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欧美諸國의 直接投資의 一般統計에서 多國籍企業의 海外活動狀況을 어느 程度推測할 수 있다.

6) Robinson, H., The Motivation and Flow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Stanford 1961 ; Basi, R.S., Determinants of United States Private Direct Investments in Foreign Countries, Kent/Ohio 1963 ; Kebischull, D. ; Motive für deutsche Direktinvestitionen in Entwicklungsländern, in: Beiheft der Konjunkturpolitik, Heft 19. Berlin 1972, pp. 11-23 f) UNCTAD, Report TD/122/Supp. 1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1972 ; UNCTAD, Preliminary Report-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TD/B/C.2/104 and Corr. 1-4, kap. II B ; United N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World Development, New York 1973 ; Committee on Finance United States Senates, Implications of Multinational Firms for World Trade and Investment and for U.S. Trade and Labor 1973 ; Task Force on the Structure of Canadian Industry, Foreign Ownership and Structure of Canadian Industry, Ottawa, 1968 參照

8) 特히 Luxembourg, Lichtenstein, 파나마

表-2 重要工業國의 海外直接投資<sup>a)</sup>

年 度	年 末 累 計				單位：百萬美弗	
	美 國	英 國	西 獨	日 本		
1960	32,765	11,989	758		289	
1965	49,328	16,797	2,076		956	
1970	78,090	21,391	5,775		3,596	
1971	86,001	24,019	7,277		4,480	

  

年 度	平 均 增 加 率				單位：%	
	美 國	英 國	西 獨	日 本		
1960—65	8.5	7.0	22.3		27.0	
1965—71	9.7	6.1	23.2		29.4	
1960—71	9.2	6.5	22.8		28.3	

a) 歐美諸國間에 多小의 差異는 有지만, 一般的으로 外國企業의 株式或은 持分의 25% 以上을 取得하는 投資와 長期債權(豆期 5年 以上)의 帳籍額. 단 西獨은 利益의 再投資 포함.

資料 : United N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World Development, New York 1973, Table 10, p. 146;

S.v. Saldern: Internationaler Vergleich der Direktinvestitionen wichtiger Industrieländer HWWA-Report Nr. 15, Hamburg 1973.

表-3 海外直接投資<sup>a)</sup>의 地域別構成比

單位=%

投資國	美 國		英 國		西 獨		佛蘭西	日 本
	投資地城	1960	1970	1960	1970	1961	1970	1970
北 美	美 國	34.1	29.2	24.4	23.4	20.6	16.4	10.4
	美 國	—	—	9.1	11.8	8.7	8.5	4.9
	카나다	34.1	29.2	15.3	11.6	11.9	7.9	5.5
歐 羅	巴	20.3	31.3	12.1	18.8	38.5	56.9	34.5
	E C	8.1	15.0	7.4	12.1	14.0	30.7	21.3
	英 國	9.7	10.3	—	—	1.4	2.8	3.8
南 美	美	28.3	18.8	8.0	7.5	28.6	17.4	7.5
	부라질	2.9	2.4	—	—	16.6	7.0	7.5
아세아	印 度	7.1	7.2	16.1	10.9	3.9	2.7	7.0 <sup>b)</sup>
	印 度	—	—	7.7	4.5	1.6	0.8	—
아프리카		2.8	4.5	21.7	19.9	5.8	5.6	39.3
호주—뉴질랜드		2.6	4.2	17.8	19.4	2.6	1.0	—
								7.8

a) 國際機構를 通한 投資가 포함되지 않아 構成比의 合計는 100% 未達

b) 호주, 뉴질랜드 포함

c) 中東포함

資料 : Von Saldern, S., Internationaler Vergleich der Direktinvestitionen wichtiger Industrieländer, HWWA-Report 15, Hamburg 1973, p. 13

自由世界 全私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1960—1971年間に 1650億美弗에 달했다(累計)<sup>9)</sup> 이 것을 國別로 보면(表-2 參照) 美國이 過半數以上인 860億美弗을 投資하므로서 世界多國籍企業中에서 主導的役割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큰 投資國들이 英國, 西獨, 日本들의順序이다. 西獨과 日本의 投資액은 現時點에서는 아직 比較的 적으나 增加率이 他國에 比해 월등 크기때문에 投資액은 相對的으로 擴大될 것이다(表-2 參照). 1970年 美國海外直接投資의 全業種平均產出係數<sup>10)</sup>에 準하여 全世界의 海外直接投資의 產出係數를 2로 設定한다면<sup>11)</sup> 世界海外直接投資를 通한 1971年의 總海外生產은 約 3,300億美弗에 达한다. 이것은 같은 해에 自由世界의 全輸出額에 해당하는 것으로 多國籍企業의 海外生產活動規模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海外直接投資를 地域別로 볼것 같으면(表-3 參照) 美國, 英國, 西獨과 같은 重要投資國들은 1970年에 全投資額의 3分의 2을 先進工業國에, 나머지를 開發途上國에 投資했다. 開發途上國의 低水準의 國民總生產을 考慮한다면 對開發途上國投資는 先進國에 比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 5.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sup>12)</sup>

지금까지 검토한 多國籍企業의 對外直接投資의 規模와 經營政策을 배경으로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에 어떤 影響을 주는지 分析해보기로 하겠다. 現在 開發途上國에 서는 國民所得成長과 賦倂擴大를 至上目標로 하고 이 目標들을 達成시키기 위해서 國際收支의 均衡을企圖하는 것이 經濟政策의一般的 경향이다. 小論에서는 여러 經濟目標中에서 도 이 3目標變數에만 局限시키겠다.

### a. 成長效果

經濟成長의 經濟的基本要因은 資本形成과 技術進步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形成에는 두側面이 있다. 即 貯蓄過程과 投資過程. 于先 多國籍企業은 貯蓄過程에 어떤 影響을 주는지 검토해보겠다. 이 影響은 다시 直接效果와 間接效果로 나누어진다. 直接效果로서는 多國籍企業이 投資한 額數만큼 被投資國에 對해 貨幣資本을 增加시키며 實物資本形成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韓國의 경우는 直接投資가 總國民貯蓄에 차지하는 比率이 1973年에 11.1%<sup>13)</sup> 까지 達했다. 直接投資의 貯蓄效果는 여기에서만 끝이지 않는다. 長期的으로는 間接效果가 일어난다. 따라서 長期的인 期間을 두고 이 間接效果까지 考慮해야만 多國籍企業의 貯蓄效果에 對한 종합적인 判斷을 할 수 있다.

間接效果로서는 첫째 多國籍企業의 投資活動에서 생기는 企業·利益金의 貯蓄을 들수있다. 多國籍企業들은 그들의 우월한 經營資源(Special asset)을 기초로 開發途上國의 國內企業에 比해 높은 生產性과 그에 따른 높은 收益率을 達成하고 있다. 1965—1969年 사이의 美

9) United Nations, 前揭書, pp. 159—160

10) 여기서 產出係數라함은: 一定年度의 海外生產의 賣上高 ÷ 同年度까지의 海外直接投資의 累計(即 固定資產)

11) Robock, S.H./Simmonds, K., International Business: How big is it—the Missing Measurements, i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V(1970), No.3, p. 16; United Nations, 前揭書, pp. 159—160

12) 多國籍企業의 開發途上國에 미치는 經濟的影響에 關한 文獻: 特히 Johnson, H.,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s a Development Agent, i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5, No. 3, 1970; Streeten, P., Costs and Benefi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 Dunning, J. e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1971; United Nations, 前揭書

13)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認可總括(1974, 3. 31 現在)와 한국은행, 경제통계년보 1974,에서 計算

國海外直接投資의 平均收益率은 亞細亞 地域에서는 30% 程度까지 達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利潤은 現地子會社內에 全部 貯蓄되지는 않고 利潤의 큰部分은 母會社로 送金된다. 美國의 例를 볼것 같으면 利潤의 半以上은, 英國의 경우에는 3분의 2以上이 母會社로 送金되고 있다<sup>15)</sup>. 거기다 原資材部品들이 母會社에서 子會社로 供給될때 價格을 올려 子會社의 收益을 人爲의 으로 적게 하여 그만큼 收益이 自動的으로 母會社로 送金된다는 事實, 또는 多國籍企業의 進出로 因하여 競爭企業이나 代替產業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事業轉換이 不可能하여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이 分野에 資本形成이 減退된다는 事實까지 考慮한다면 收益을 通한 貯蓄效果는 期待될수 없다.

둘째로는 直接投資를 通해 助成된 關聯產業의 貯蓄效果이다. 關聯產業의 助成問題에 關해서는 나중에 다시 言及되겠지만, 關聯產業의 助成이 不進하여 이 間接效果도 크게 期待될수 없다.

셋째로 直接投資의 所得效果를 通해 家計의 所得水準과 貯蓄能力을 向上시켜 家計의 貯蓄率을 높일수 있으나 現實의 으로는 여기에도 問題가 있다. 多國籍企業은 戰略的 資源이 없는 開發途上國에서는 (韓國에서도 如實히 보여주듯이) 製造業 特히 家庭電氣, 自動車, 纖維化學같은 消費財產業에 進出하여 新消費品들을 導入하고 있는데, Television의 普及은 廣告效果를 通하여 家計의 消費意慾을 자극시켜 消費性向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는 向上된 貯蓄能力을 通해 增加될수 있는 貯蓄以上으로 家計의 저축을 鈍化시킬 可能성이 많다.

다음으로는 投資效果를 檄토하기로 하겠다. 이것도 그렇게 단순한 問題가 아니다. 多國籍企業에 依해서 導入된 貨幣資本이 어느程度로 實事上 投資로 支出되는지도 파악해야하고 國民經濟에 어떤 間接的 投資波及效果를 招來하는지도 알아야 投資效果에 對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다.

多國籍企業들의 海外進出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로 既存하고 있는 國內企業의 株式或은 持分의 一部或은 全部를 買收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째로 子會社或은 合資會社를 새로 設立하는 方法이다. 첫째方法을 通해서 直接投資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投資效果는 外國人投資家에게 株式이나 持分을 팔은 者가 回收된 資本 即 導入된 資本을 어떻게 處分하느냐에 左右된다. 만약 다른 事業에 再投資한다면 그 額數만큼 投資가 增加된다. 그렇지 않고 이 資本을 消費의 으로 使用하거나 海外로 移轉시킨다면 多國籍企業의 投資效果는 없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둘째方法을 通해 直接投資가 行해지는 경우에는 企業의 新設은 投資와 直結되기 때문에 새로 企業을 設立하기위해 導入된 資本에 해당되는 額數만큼 投資效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多國籍企業들은 先進國경우에는 첫째方法을 通해서도 많이 進出되고 있으나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大部分이 둘째方法으로 進出하고 있기 때문에 投資效果는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直接的인 投資效果는 여기에만 局限되는것이 아니다. 多國籍企業은 國內投資家와 合資會社를 設立하여 國內資本을 投資化하므로서 多國籍企業들을 通한 直接的인 投資效果는 그들의 投資額數보다 크게된다. 비록 國내投資家의 資本이 多國籍企業 없이도 달리 投資

14) Kebischull, D., Die ökonomische und politische Macht multinationaler Unternehmen, in: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cialpolitik, Berlin 1972, p. 781

15) 澄田/小宮/渡邊, 前掲書, pp. 97

16) 消費增加의 投資誘發效果를 無視하는 前提下에서

된다 하더라도 開發途上國에서는 技術이 不足되어 技術集約的인 成長產業에 投資 못하고 특히 非生產的인 不動產投資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up>17)</sup> 多國籍企業을 通한 國內資本의 成長產業에 對한 配分은 投資構造를 改善한다는 點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間接的 投資效果로서는 첫째 關聯產業의 誘發을 通한 投資와 둘째로는 既存競爭企業이나 代替產業의 위축으로 因한 投資減退를 들수 있다. 關聯產業의 誘發로 因한 投資效果는 投資된 產業의 中間需要比率과 中間投入比率의 크기에 左右되는데 比率이 크면 클수록 效果가 크게 되는 것이다. 多國籍企業들은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主로 天然資源產業과 製造業으로 그中에서도 特히 家庭電氣機械, 纖維化學, 自動車와 같은 消費財產業에 進出하고 있다<sup>18)</sup>. 韓國의 例를 보아도 1962-1974년間に 全外國人投資의 平均 75%가 製造業에 行해지고 그中에서도 特히 纖維, 電氣機械, 化學工業에 投資가 集中되고 있다<sup>19)</sup>. 그런데 이런 業種들은 中間投入比率이 比較的 커서<sup>20)</sup> 關聯產業의 誘發에서 오는 投資效果가 클수 있으나 多國籍企業들은 必要한 原資材나 部品들의 큰 部分을 海外의 母會社에서 購入하기 때문에 이런 可能한 投資效果가 充分히 發揮되지 못하는 것이 開發途上國의 實情이다. 最近 UN 調査에 依하면 外國企業들은 必要한 原資材나 部品中에서 約 50%만 現地에서 構成한다고 한다<sup>21)</sup>. 韓國의 自動車產業을 보더라도 品質上 國內供給이 可能한 部分品까지도 海外의 母會社에서 購入되고 있는 實情이다.

間接的効果로서 投資가 誘發될수도 있지만 減退될수도 있다. 即 既存 競争企業이나 代替產業이 위축하면 投資가 減退될수 있는 것이다. 多國籍企業은 그들의 特有한 經營資源인 高度의 資金調達能力과 技術을 所有하고 있어 開發途上國의 國內企業에 比해 높은 生産性을 가지고 있고, 월등한 代替商品을 生產할 수 있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의 市場에 參入하기도 容易하고 그들이 市場에 參入하면 特히 既存中小企業과 代替產業에 압박을 加하게 된다. 이런 現象으로 因한 投資波及效果에 對해서는 微視經濟的과 巨視經濟的分析이 必要하다. 國內既存企業의 市場占有rate이 減少됨에 따라 그들의 投資가 경제내지 위축된다. 이경우 해당 產業에서는 多國籍企業의 投資에도 不拘하고 그 產業의 全投資量은 別變化가 없을수도 있다. 結果的으로는 既存競爭企業이나 代替產業 代身에 多國籍企業이 投資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巨視的 即國民經濟的 觀點에서는 全體의 投資水準은 위축된 既存企業이 他產業으로 投資를 轉換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 變化가 없을수도 있다. 短期的으로는 投資轉換이 어려우나 長期的으로는 開發途上國과 같이 資本이 不足된 나라에서는 可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既存企業 또는 既存產業의 위축은 여러면으로 資本의 손실을 超來한다는 點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經濟成長을 規定하는 또하나의 要因은 技術進步이다. 于先 多國籍企業의 技術導入內容을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開發途上國의 技術進步와 그의 成長效果를 評價하기로 하겠다.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에 進出하여 生產活動을 할 때 그들은 資本을 導入하는 同時に 經營活動에 必要한 여러가지 技術을 導入한다. 그러나 그들은 研究開發에 關聯된 技術이라든가

17) 韓國의 大財閥들의 莫大한 投機의 不動產投資는 좋은 例로 들수 있다.

18) Von Saldern, S., Internationaler Vergleich der Direktinvestitionen wichtiger Industrieländer, HWWA-Report 15, Hamburg 1973, pp. 24-82

19) 經濟企劃院, 業種別 規模別 國別 外國人投資認可現況(1973, 12, 31, 現在)

20) Hirschman, A.O., Die Strateg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原名: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1958), Stuttgart 1967, p. 100

21) United Nations, 前揭書 p. 48

施設 및 機械設計에 關한 技術, 生產設備製作에 關한 技術과 같은 鈍粹技術을 直接導入하여 現地에서 研究하고 設計하여 生產設備를 製作하는 것은 드물고, 主로 母會社에서 이미 技術이 具體化된 資本財를 導入하므로서 間接的으로 技術을 導入한다. 現地에서의 技術開發研究가 있다면 기껏해야 現地消費者들이 휴미에 맞는 製品의 應用研究, After Service에 關한 研究, 現地에 주어진 환경에 適合한 工程技術의 開發程度에 局限될뿐이지 重要한 技術研究開發은 本國의 母會社에서 集中的으로 行해지고 있다<sup>22)</sup>.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를 通한 海外進出은 同時에 經營, 販賣, 組織에 關한 Know How도 同伴한다. 이런 Know How는 一般的으로는 多國籍企業의 母會社에서 子會社로 職員이 파견되거나 子會社나 合資會社의 職員을 母會社로 보내 特別訓練을 시킨다든가 或은 現地에서 職業訓練을 하는 經路를 通하여 移轉되고 있다.

이렇게하여 導入된 技術의 內容을 볼것 같으면 高度의 技術도 없지 않으나 抵水準의 技術도 많다. 多國籍企業은 電子, 自動車工業에 많이 進出하고 있는데 이 復合生產品의 重要한 部分品들은 앞에서 이미 보다싶이 國內에서 生產調達되지 않고 母會社에서 導入되기 때문에 商品製造에 必要한 핵심적 技術은 母會社에 남아있게되고 단순한 組立技術 程度만 導入될 뿐이다. 導入된 製品技術과 工程技術도 化學工業分野(특히 纖維化學)를 除外하고는 抵水準의 技術들로 이루워져 있는것이 實情이다. 빙록에 所在하고있는 經濟協力센타(The Economic Cooperation Center)는 最近 美國과 日本企業의 對東南亞細亞 直接投資에서 수반한 技術移轉의 內容을 分析하였는데 그 結果에 依하면 特히 日本企業들은 特殊한 技術을 必要로하지 않고도 生產할수있는 보편적인 商品을 生產하는 施設材들을 많이 導入한다고 한다<sup>23)</sup>. 비록 特殊한 技術이 導入됐다 해도 이들은 이미 한풀 간 技術인 경우도 적지 않는 模樣이다.

이런 技術移轉의 問題點들을 볼때 多國籍企業의 開發途上國에 對한 技術革新效果를 過大評價되어서는 안될것이다. 勿論 전반적으로 볼때 多國籍企業은 技術移轉을 通해서 開發途上國 成長產業의 開發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開發途上國에는 技術이 결핍되어 開發되지 못하는 產業分野가 許多한데 多國籍企業들은 技術을 導入시키고 同時に 技術者들을 파견하여 國내企業의 獨自의 힘으로는 開發시킬수없는 成長產業을 개척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우리 韓國을 보드라도 石油精製業, 基礎化學工業, 自動車工業等의 開發에는 Gulf, Caltex, General Motors들이 先導的 役割을 하고있다. 그러나 多國籍企業의 他產業으로의 技術傳波效果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은 鈍粹技術이 아니라 이미 資本財에 具體化된 技術들을 導入하기 때문에 國내企業들이 技術을 理論的으로 規明하고 消化하며 製品을 改良한다든가 새로운 技術을 開發시킨다든가 하는것은 매우 곤란하다. 鈍粹技術이 導入됐다하더라도 技術導入契約에 따라서 技術은 外國人投資家의 母會社에서 파견된 技術者에 專擔시키는 경향이 많으니<sup>24)</sup> 國내企業은 導入된 技術과 接觸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組立技術이라든가 抵水準의 技術에서는 다른 產業에 對한 全波效果를 크게 期待될 수도 없다. 長期的으로 볼때는 資本財에 具體化된 技術을 導入한다는것은 國내產業의 獨自

22) United Nations, 前揭書 p. 50

23) 國際商業會議所 韓國國內委員會, Asia地域의 投資와 技術移轉—CAFEA—ICC 서울總會主題研究—서울 1973, pp. 43—44

24)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타, 直接投資의 現況과 課題(韓國經濟研究叢書 23卷), 서울 1971, pp. 39—40

的技術開發을 오히려 장해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成長效果를 검토하였는데 종합적으로 볼때 長期的으로는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하는 것은 事實이나 多國籍企業의 活動과 結付되는 開發途上國의 잠재적 成長力은 充分히發揮되지 못하고 있다.

### b. 雇傭效果

다음으로는 雇傭效果를 검토하기로 하겠는데 여기서는 多國籍企業이 雇傭水準과 雇傭構造에 주는 影響을 分析하기로 하겠다. 雇傭水準은 投資水準과 新規勞動人口 대비 失業者에 依해 規定된다. 開發途上國에서는 潜在失業까지 加算하면 大量의 失業人口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雇傭水準은 主로 投資水準의 變化에만 左右된다. 따라서 雇傭水準의 效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先于 多國籍企業의 經濟活動은 開發途上國의 投資水準을 어떤 方向으로 變化시키는지를 检토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分析된 바와 같이 多國籍企業은 長期的으로는 直接間接的으로 投資水準을 上昇시키며 따라서 雇傭水準도 向上시킨다고 볼 수 있다.

上昇程度는 一方으로는 投資規模에 他方으로는 投資構造와 導入된 生產技術의 種類에 左右된다. 비록 投資規模가 크다하더라도 投資가 資本集約의 한 分野에 行해진다면 労動力不足의 先進工業國에서 開發된 勞動節約的 生產技術이 그대로 導入된다면 雇傭效果는 相對的으로 적다. 그런데 開發途上國에 對한 直接投資는 勞動集約의 消費財產業과 資源產業에集中되어 雇傭效果는 적지 않다고 推測할수 있다. 韓國의 例를 보더라도 1962—1973年間全直接投資의 平均 59%가 雇傭係數가 높은 纖維, 電子工業, 一般機械, Hotel 觀光產業에 行해지고 있다<sup>25)</sup>. 그러나 反面 多國籍企業은 開發途上國의 雇傭問題와相反되는 勞動節約的 生產技術을 導入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點을<sup>26)</sup> 看過해서는 안된다.

多國籍企業의 經濟活動은 開發途上國의 雇傭構造에도 影響을 준다. 多國籍企業은 戰略資源이 없는 開發途上國에서는 主로 製造業으로 進出하면서 特히 農業分野에 있는 潜在失業者들을 製造業으로 吸收한다. 따라서 生產性上昇率과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높은 製造業에從事하는 就業人口가 相對的으로 增加되어 雇傭構造가 改善되며 이것은 經濟成長의 推進力이 되는 것이다.

### c. 國際收支效果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는 原來 國際經濟의 現象이라 投資國과 被投資國의 國際收支에 對해 多角的으로 影響을 준다. 資本去來에 對해서뿐만 아니라 貿易에도 直接, 間接의 方으로 影響을 준다. 先于 資本去來와 輸出入에 주는 影響들을 分析하고 끝으로 종합적인 國際收支效果를 評價해 보기로 하겠다.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가 現地의 資本市場에서 融資되지 않는限 直接投資는 被投資國으로서는 資本輸入을 意味하며 短期的으로는 그 해당액만큼 資本收支를 改善시킨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直接投資는 果實을 얻어들이는데, 全收益이 現地에 再投資된다면 被投資國의 資本收支에는 變動이 없으나 實際로는 이미 보다 심이相當한部分의 收益이 母會社로 送金된다. 거기다 또 母子會社間의 原資材移轉價格의 調整으로 子會社의 收益이 암암리에 母會社로 送金된다. 일단 實行된 投資는 계속적으로 利潤을 거더드리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볼때 果實送金은 投資額을 超過하여 資本收支를 惡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Robock/Simmonds

25) 經濟企劃院, 業種別 規模別 國別 外國人投資認可現況(1973, 12, 31 現在)

26) Pavitt, K.,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in: Dunning, J., (e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1971, pp. 83—84

의 推算에 依하면 美國企業의 對開發途上國 直接投資는 1963—1969年間에 平均 約 6,5億弗이었는데 本國으로의 果實送金은 同期間中 年平均 25億弗에 達했다<sup>27)</sup>. 만약에 子會社로부터 母會社에 支拂되는 Royalitie까지 加算한다면 超過額은 훨씬 더 클것이다.

輸出效果는 直接間接效果로 區別할 수 있다. 直接效果란 多國籍企業이 現地에서 母國或은 第三國으로 再輸出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의 海外進出의 가장 重要한 動機가 進出國의 市場確保에 있고 거기다 多國籍企業은 散下 子會社間의 競爭을 회피시키기 위해서 子會社에 對한 再輸出의 量的 地域的制限을 加하고 있기 때문에 輸出效果는 크게 될수 없다. 韓國의 例를 보드라도 1970年 12月末 全外國人投資額의 28%만이 全量輸出目標로 하였다<sup>28)</sup>. 輸出의 間接效果란 直接投資의 開發, 所得, 物價, 技術傳播效果등을 通하여 國內輸出產業의 輸出에 주는 影響을 말하는데 間接效果에 對한 종합적 判斷은 매우 곤란하다. 例를 들어 多國籍企業은 어느 產業分野에서는 염가의 原資材를 國內市場에 供給하여 이 原資材를 使用하는 輸出產業의 國際競爭力を 強化시키는가하면 反面 어느 產業分野에서는 獨占價格政策을 하여 物價水準을 上昇시켜 輸出產業의 國際競爭력을 弱화시키기도 한다. 우리 韓國의 경우를 볼것같으면 石油, 肥料와 같은 戰略的 基礎物資產業에서 多國籍企業들은 最抵收益保障契約을 배경으로 獨占的 價格政策을 强行하므로 物價水準을 올리고 있는것이 좋은 例가 되고있다.

輸入에 對한 直接效果는 被投資國의 經濟發展段階와 多國籍企業의 經營戰略에 左右된다. 資本財供給이 主로 外國에 依存되고있는 開發途上國에서는 直接投資는 資本財輸入을 必然的으로 수반한다. Reddaway의 推算에 依하면 英國의 海外直接投資는 被投資國인 美國이나 西獨의 경우에는 해당投資額의 단지 1—2% 程度만이 이 地域으로의 資本財輸出을 수반하나 나이제리아의 경우에는 37%까지 된다<sup>29)</sup>. 비록 必要한 資本財에 對한 現地供給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外國人投資家가 母會社의 資本財를 販賣하기 위해서 이들을 母會社에서 購入하는 경향이 있다. 그뿐만아니라 多國籍企業은 일단 生產施設이 設立되어 生產이始作되면 生產에 必要한 原資材部品들을 母會社나 他子會社에서 輸入한다. 그러나 이렇게 資本財와 原資材의 輸入을 通해 生產된 製品은 部分的으로 從來의 輸入品을 代替하기 때문에 直接投資로 起因된 輸入負擔을 어느程度 상煞한다. 被投資國政府의 輸入代替政策이 철저할수록 이와같은 輸入負擔도 많이 상煞할 수 있다. 그러나 輸入代替政策에는 限界가 있다. 原資本財나 資材部品의 國內生產이라든가 國產品의 使用에는 技術, 品質, 價格面에 問題가 없지않으나, 무엇보다도 大은 開發途上國은 多國籍企業의 資本財나 部品의 現地調達을 義務化시킬 權力의 배경이 없다. 끝으로 輸入效果로는 直接投資의 所得效果를 通해 間接的效果로 輸入이 增加되는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直接投資는 여러면으로 國際收支의 各項目에 影響을 주고있으며 綜合收支效果를 判斷하기 위해서는 各項目의 效果를 量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 간단한일이 아니다. UNCTAD의 여러 케이스 스타디는 해당國家의 經濟的前提條件如何에 따라 輸出入效果가 달리지기 때문에 國際收支效果에 對한 統一된 判斷은 不可能하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sup>30)</sup>.

27) Robock/Simmonds, International Business and International Enterprise, Homewood 1973, p. 159

28) 大韓工商會議所, 前揭書, p. 26

29) 澄田/小宮/渡邊, 前揭書 p. 253

30) United Nations, 前揭書, pp. 55—56

## 6. 結論

지금까지 우리는 多國籍企業의 成長, 雇傭, 國際收支效果를 검토했는데 未知數인 國際收支效果를 除外하고는 多國籍企業은 成長을 促進시키고 雇傭을 擴大시키는 方向으로 作用은 하나 可能한 潛在的效果를 充分히 發揮하지 않는다는 結果가 나왔다. 거기다 開發途上國의 다른 政策目標와 相反되는 一連의 副作用들을 考慮한다면(특히 經濟의 對外依存性) 多國籍企業의 經濟活動은 開發途上國에 對한 혜택이라고만 生覺할것이 아니라 政策的으로 解決되어야할 問題이라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問題는 특히 그들의 特有한 經營戰略과 結付된다. 이 戰略을 편철시킬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의 巨大한 政治的, 經濟的 權力이 存在하며 이 問題는 終局에는 多國籍企業과 被投資國間의 權力關係에 歸結된다. 이 事實은 이번 中東의 石油波動이 如實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國民經濟와 企業의 國際化를 通한 經濟的 利得의 機會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면 權力關係를 改善하여 多國籍企業의 開發途上國에 對한 經濟的 혜택을 極大化하는것이 政策者の 앞으로의 課題일 것이다. Opec이라든가 Anden 구형形成의 根本意圖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